제 7 0 강

새 하늘과 새 땅

▌성경본문 요한계시록 4:1–22:21▐

프렐류드(Prelude)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오늘 우리는 더럽혀진 이 역사를 무대로 삼으시고 그 위에 인간들을 불러 친히 수행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종막'(終幕–epilogue)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종막은 서막의 완성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본 요한은 이 놀랍고도 신비한 하늘의 드라마를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으며, 더욱이 곧 불어 닥칠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은유에 담아 핍박을 받고 있는 신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비밀을 '암호화'(暗號化)하였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비밀'(계 5:1–8:1), '일곱 나팔'(계 8:2–11:9), '용과 대접의 분노'(계 15:1–16:21), '마지막 심판과 바빌론 멸망'(17:1–19:10)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의 시작을 알리는 암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상한 환상들, 동물들, '수'(數)는 이 역사에서 일고 있는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담은 '상징적인 비밀언어'들이었습니다. 핍박에 있는 신도들은 이 암호들을 풀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소망을 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Ⅰ. 주요 내용

1.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요한계시록 4:1–11:9)
2. 용의 전쟁(요한계시록 12:1–20:10)
3. 새 하늘과 새 땅(요한계시록 21:1–22:21)

Ⅱ. 시대적 배경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천년왕국'(千年王國–Millenium)에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 랍비들의 '메시아 왕국' 사상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전(BC) 1세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사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곧 최후의 날이 다가와 메시아께서 한정된 통치를 할 것이라는 사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한시적(限時的) 메시아 왕국을 두고 랍비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이 기간을 40, 100, 600, 1000, 2000, 7000년이라고도 했습니다.

에녹서(32:2–33:2)에 의하면 이 세계의 역사를 창조의 1주간에 따라 전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루를 1000년으로 산정하여 창조의 기간을 6000년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는 여섯째 1000년 기간에 오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곱째 1000년은 창조의 안식일에 해당하며, 이때가 메시아의 통치 기간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은 상징적인 것으로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기간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땅 사이의 분기점처럼 되어있는 1000년 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암호화한 것입니다.

〈연대표〉

요한계시록 기록
(주후 81–96)

III. 말씀과 해석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의 암호적 의미

단어	의미	범례
여자	민족, 백성, 도성	12:1 이하, 17:1 이하
뿔	권력, 권세, 폭력	5:6, 12:3, 13:1, 17:3
눈	지혜, 지식	1:14, 2:18, 4:6, 5:6
날개	기동성	4:8, 12:14
나팔	초월적 신의 음성	1:10, 8:2 이하
날선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1:16, 2:12, 16, 19:15, 21
흰옷	영광과 권위	6:11, 7:9, 13 이하, 22:14
면류관	왕권, 지배	2:10, 3:11, 4:10, 12:1
종려가지	승리의 상징	14:14, 7:9
바다	불안과 죽음의 근원	13:1, 12:1
흰색	승리의 기쁨	1:14, 2:17, 3:4 이하, 4:4, 6:11, 7:9, 13, 19:11, 14
자주색	사치, 왕의 권위	17:4, 18:12, 16
검은색	죽음, 파멸	6:5, 12
붉은색	전쟁, 희생	6:3–4
적황색	기근, 전염병	6:7–8

1.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요한계시록 4:1–11:9)

장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비밀 처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앉아계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아계신 분은 '성부'(聖父) 하나님이시고 그 옆에 앉아계신 어린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일곱 '인'(印)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으며(계 5:1), 그

누구도 열 수 없는(계 5:3) 이 두루마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담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네 동물과 24 장로는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계 5:8-9). 24 장로는 구약 12 지파와 12 제자를 합한 수이며, 큰 대접에 담은 향은 성도의 기도였습니다(계 5:8). 그리고 하늘의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계 5:11-13). 어린양이 여섯 개의 두루마리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과 구원은 엇갈리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흰말"(승리)이 등장하면(계 6:2), 그 다음은 "붉은 말"(심판)(계 6:4)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을 뗄 때 하늘에는 큰 음성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계 11:15). 일곱째 봉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여섯 번째 봉인(지진과 바다의 죽음)(계 6:12)과 일곱 번째 봉인(최후 승리) 사이에 등장하는 '인침 받은 144,000명'(계 7:4)입니다. 성경은 이 144,000을 구약 유다의 12지파 중의 '수'로 해석합니다(계 7:5-8). 그러나 144,000은 구약을 넘어 이 땅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셀수 없는 큰 무리"(계 7:9)였습니다. 144,000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닌 한 남은 자'(왕상 19:18)들이며, 이 지구촌에 남겨두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증언하는 이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144,000입니다.

2. 용의 전쟁(계 12:1-20:10)

일곱 두루마리에 이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1) 여자와 용(계 12장)

(2) 짐승 두 마리(계 13장)

(3) 진노의 일곱 대접(계 16장)

(4) 큰 음녀의 심판(계 17장)

(5) 바벨론의 패망(계 18장) 후

2번의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베풀어집니다(계

19:1–16). 이때 세상을 어지럽히던 짐승과 임금들 그리고 군대들이 몰락하고 우상숭배하던 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며(계 19:19–21), 폭력과 부정의 근원인 큰 용, 사탄은 천사에게 체포되어 무저갱 깊은 곳에 감금됩니다(계 20:1–3). 이 사탄은 천 년 동안 억류됩니다. 천 년 동안 안식세계(安息世界)가 계속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 성실한 신앙을 소유하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우상과 세상 권세, 사탄에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것입니다(계 20:4).

그러나 천년이 지나면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풀려나 곡(Gog)과 마곡(Magog)을 부추겨 또 한 차례 소동을 벌이며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백성을 증오하는 이방 족속입니다(겔 38–39장). 이 시련으로 사람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이 환란은 최후의 심판(계 20:11–14)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3. 새하늘과 새땅(요한계시록 21:1–22:21)

장로 요한은 이 모든 것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 창조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21절은 하나님의 제 2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5개의 키워드(key words)로 집약됩니다.

(1) 처음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계 21:1).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은 처음 창조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정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입니다.(계 21:2, 9–27)

새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거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으며, 열두 천사가 있고,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계 21:9–27).

(3)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계 21:3).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4) 네 번째는 '생명책'입니다(계 21:27).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으로 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5) 다섯 번째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는 기도입니다.

'마라나타'(Maranatha)는 고난받는 모든 교회, 이 세상 모든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임재, 재림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장로 요한은 '알파'(Alpha-처음)이시고 '오메가'(Omega-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으로 편지를 닫았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계 21:6-7).

Ⅳ. 성찰과 나눔

1.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 순례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상징, 비유, 예언, 약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2. 다음 몇 가지 주제는 요한계시록이 구원사의 끝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 2 창조라는 신앙을 보여 줄 것입니다.

(1) 요한계시록은 장로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담아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역사입니다.

⑵ 로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상징', '비유', '동물' '환상'들을 들어 로마의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는 로마 제국의 처음 황제 아우구스투스(Caesar Augustus)에서 시작하여 지금 박해를 가하는 '도미티아누스'(Domitianus)까지 10 황제를 지칭하며, 머리가 일곱은 교회를 박해한 황제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역사에서 읽어야 합니다.

⑶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제 1 창조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배신으로 깨지고 찢어진 제 1 창조(알파)를 완성하시는 제 2 창조(오메가)로 보아야 합니다.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제 2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3. 하나님은 처음 창조와 제 2 창조 사이에 이스라엘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셨으며, 교회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제 1 창조와 제 2 창조의 중심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이 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입니다.

프린스턴신학대학교 앤더슨 교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부활에서 확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 교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도했습니다(계 22:20).